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1968년 창작 노트

평생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한 천재 화가 피카소가 창작에 대한 열의를 가장 강렬하게 불태운 때는 놀랍게도 여든을 훌쩍 넘긴 때였다. 그 시기에 피카소는 칸(Cannes)에서 가까운 언덕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후 창작에만 몰두하면서 칩거했다. 평생을 창작 활동에 바쳤음에도 말하고 싶은 것을 아직 다 표현하지 않았다고 여긴 피카소. 만약 살아생전의 그를 지켜봤다면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평생 그의 두 손은 분주했으며, 그의 하루는 너무나 짧았다고.

피카소가 347시리즈 작품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87세였다. 만년(晩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무려 347점에 달하는 에칭(etching; 칼 등의 날카로운 도구로 금속판을 긁어 표현하는 판화기법 중 하나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작품을

완성했다. 훗날 20세기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화 시리즈 중 하나로 기록된 347 판화 시리즈는 환상적이면서 유머러스한 캐릭터로 채워진 서커스 시리즈를 시작으로 한 달쯤 후에는 화가와 모델 이미지를 등장시킨 시리즈를 선보였다.

5월에는 '시리즈 중의 시리즈'로 불리는 중요한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시리즈는 창녀와 유쾌한 술주정뱅이, 그리고 어릿광대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표현된 작품이다. 8월 말경에는 347시리즈 중 가장 에로틱한 작품 〈La Fornarina〉 연작 시리즈 25점을 완성했다. 이 에로틱한 작품은 그해 겨울 파리 '갤러리 리에리(Galerie Lieris)'에서 선택된 일부 사람에게만 공개했다.

이 347시리즈를 감상할 때면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과



1 <Picasso, son Oeuvre, et son Public>, 2만7000~2만9000달러. 2 <Peintre en Costume Espagnol peignant sur son Modèle>, 7000~1만 달러. 3 <Mousquetaire attablé avec un jeune Garçon évoquant sa Vie>, 1만 1000~1만 4000달러. 4 <Petite Infante accroupie et Courtisan>, 3500~5200달러.



지난 3월 29일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 'Old Master,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에서는 피카소의 347 판화 시리즈를 선보였다. 피카소가 87세 되던 해에 발표한 이 시리즈는 생의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던 그의 창작 열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글 신수정(크리스티 코리아) 에디터 유소라 자료 협조 크리스티 코리아(720-5414)

같은 착각이 든다(실제로 몇몇 작품은 유서 깊은 극장의 무대에 그려지기도 했다). 이는 작품 속에 생생하게 표현된 1500여 명의 주인공 때문일 듯.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작품마다 그 이미지와 캐릭터가 다르게 표현되어 비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보인다.

각 이미지는 지난 삶에 대한 피카소의 추억과 기억이 그의 특유의 위트와 창의성으로 어우러져 환상적인 느낌마저 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벨라스케스(Velazquez), 고야(Goya), 앵그르(Ingres), 마네(Manet), 램브란트(Rembrandt) 등의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데 유독 자존심이 강한 그가 다른 작가를 자신의 작품에 등장시킨 것은 작품을 통해 그들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47시리즈가 주목받는 것은 그가 초기에 발표한 것들과 확연히 다른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초기 작품에 반영된 그의 이미지가 정열적이고 폭력적이며 섹슈얼했다면, 이 시리즈에서 피카소나 다른 남성의 이미지는 열정적이기보다 수동적인 관찰자에 가깝다. 반면에 여성의 모습은 여전히 관능적이고, 유혹적이며 쾌활하다. 이렇듯 세상에 초연한 듯한 관찰자로서의 남성은 일종의 관음증(Voyeurism)을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종전의 작품보다 다소 우울한 느낌을 풍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의 연인이었던 피카소는 아마도 이 치열한 연애 전선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번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피카소의 347시리즈 중 일부이며, 나머지 작품들은 오는 6월 사우스 켄싱턴(South Kensington) 경매와 9월 런던 경매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